



중·일불교대표단,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한·중·일대회 예비회의차 방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4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중일불교 우호교류대회 예비회의를 위해 방한한 중국과 일본불교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자승스님은 “제14회 한중일불교우호 교류대회 예비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머무시는 동안 편안하고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일본불교대표단에게 “한국불교계는 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사고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위로한 뒤 중국불교대표단에게는 지난해 한중일 불교대회에서 보여준 호의에 감사하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중국불교대표단장인 용신스님(하남성불교협회장)은 “한중일불교대회가 지난 1995년 시작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대회가 계속될수록 3국 불교계간의 우호증진은 더욱 더 공고해질 것”이라



고 말했다.

일본불교대표단장인 나카무라 켄이치로 입정교성회 교토교회장은 “일본이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예비회의를 통해 가을에 열릴 본대회가 원만하게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진관사에서 환영찬을 갖고 우호증진의 시간을 가졌고, 다음 날에는 AW컨벤션센터에서 예비회의를 열고 제14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일정과 내용 등을 확정했다.

베트남에 복지타운 건립 추진 연꽃마을, 탐키시와 MOU 체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 스님)이 베트남 현지에 한국형 복지교육타운을 설립한다. 연꽃마을이 매년 광남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오던 중, 연꽃마을의 복지 시스템을 눈여겨 본 광남성 관계자들이 한국형 복지교육타운 설립을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베트남에서 대지를 무상으로 기증하고 연꽃마을이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공동설립으로 추진한다. 타운 내에는 한국형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국제교육센터, 건강증진센터, 복지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와 교육을 아우르는 복합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연꽃마을과 베트남 탐키시는 4월 20일 안성 파라밀병원 법당에서 복지교육타운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과 베트남 현지에 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고위공무



원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각현스님은 “양국 우호증진과 한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트란민카 베트남 광남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모든 불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종단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 스님들을 초청해 불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단복지법인 연꽃마을 031-898-1486



수불스님(왼쪽)과 프랜시스 X. 클루니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장

하버드大, 한국불교 연구한다

종단이 역점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국불교 세계화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하버드대는 올해 ‘한국불교’를 주제로 하는 연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프랜시스 X. 클루니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장은 4월 8일 “종교의 정체성을 주제로 연구를 시작한다.”며 “연구 과제의 핵심은 아시아, 그 가운데서도 한국 불교에 집중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뿐 아니라 아시아센터와 한국학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제신학포럼 참석차 내한한 클루니 소장은 서울 안국선원을 찾아 안국선원장이자 안국장학회장 수불스님을 만나 연구 사업 진행경과를 설명했다.

안국장학회와 하버드대는 2005년 당시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미국 순방 중에 하버드대를 찾아 한국불교 연구 지원 방안을 천명했고, 수불스님이 법장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학 연구’를 위한 안국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10만 달러씩 5년간 기금을 지불, 이 기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수불스님은 “한국불교학을 연구하는 동국대와 교류를 통해 선불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인류가 폭넓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종교와 학계 등이 공동으로 연구해 찾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했다.

이에 클루니 소장은 “학문을 너머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대학의 존재 이유”라며 “앞으로 동아시아 종교 주제를 두고 연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때, 한국에 초점을 두고 시리즈로 계속 진행해 한국불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클루니 소장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과제를 조언했다. 클루니 소장은 “외국에 선원을 세우고 한국 스님들을 파견해 선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설명하고 △선불교와 참선에 관한 철학·문화·정신성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외국에 스승으로 올 때 스승의 역할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며 “서양인들은 동양의 스승에게 배울 때 혼자서만 가르침을 주는 경향에 답답해한다. 학생들의 질문을 듣고 답하면서 함께 배우는 학습자의 역할도 반드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불교신문 김하영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www.templestay.com)을 찾아서...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스님은 지난 2004년, 한국불교문화의 원형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현대에 되살려 계승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 포문을 열었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하여 불교문화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으로, 33관음성지 순례사업과 사찰음식 세계화, 불교문화상품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인류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춧돌로서 불교의 정신적 가치를 세계인에게 인식시키는 것. 그것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나아갈 방향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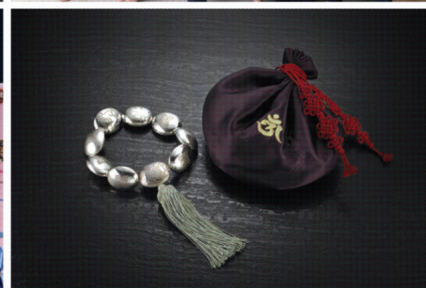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에 센터가 있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홍보관, 사찰음식 전문점, 불교전문서점, 카페 등이 속해 있다. 템플스테이에 관한 정보를 모두 만날 수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통역전문가가 연중 대기하고 있다.

◇ 템플스테이 - 전국 121개 사찰에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찰 문화체험, 산사에서 머무르며 발우공양, 다도, 참선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수



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고, 내면의 휴식을 찾는 것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OECD는 템플스테이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사찰음식 세계화 -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을 시작으로, 상생과 공존의 밥상으로 불리는 사찰음식을 대중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난 2월 뮌헨에서 열린 ITB(국제관광박람회)와 뉴욕에서도 사찰음식을 소개해 현지지의 호평



을 받았으며, 현재 발우공양 2, 3호점 '공'과 '공감'이 문을 열었다.

◇ 문화사업 - 불교 캐릭터, 서체, 문구류, 의류 등 전 분야에 걸친 불교문화상품을 개발 중이며, 관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제4회 한국불교문화상품 공모전 당선작이 교과서에 실리는 등, 전통적인 불교유산을 재조명해 그 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은 세상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 가득한 봄입니다. 일 년 중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봄, 전국 곳곳에 오색 빛으로 이어진 연등마저 꽃처럼 빛나는 때입니다.

지난 4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단장으로 부임하며 그려본 우리 불교의 미래 또한 이 봄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 한국불교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의 힘을 통해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1,700년 역사를 지닌 한국 불교문화와 수행, 포교, 복지가 거대한 수레바퀴가 되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 난타가 깨달음을 구하며 피운 작은 등이 지혜의 상징이 되어 천년을 이어온 것처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또한 한국전통불교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스님



파옥스님 초청 법회 개최

조계종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해오스님)에서는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만남과 소통'을, 조계사(주지 토진스님)에서는 '대중과 함께 하는 참선'이란 주제로 법회가 진행되었다.

4월10일 전통불교문화원에서는 200여명의 대중들이 간화선 수행자로 꼽히는 고우스님과 위빠사나 수행의 대표적 수행자 미안파 파옥스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파옥스님은 위빠사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의 강연을 하였고, 고우스님은 두 수행법의 같고 다른



파옥스님(미안파 파옥센터의 3대 조실스님)과 고우스님(조계종 선원원 증명법사)

점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4월 12일 파옥 큰스님은 조계사에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탐진치가 여러 측면에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를 경전에 있는 주제에 접근하여 법문을 했다.

국제불교학교 학인, 조계사 체험 학습

봄기운을 느끼는 것이었는데 오라카락 비가 내리면서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4월 14일, 무진스님(국제불교학교 학장)과 자우스님(학감) 그리고 학인 스님들이 조계사를 방문하여 학장인 무진스님의 수업을



받았다.

한국 불교의 일변지 조계사의 이모저모를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소개하는 과정의 수업이었다. 일주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종각까지 영어로 설명하였는데, 주위의 어수선했음에도 아랑곳없이 열심히 교육을 받는 모습이였다. 영어로 생활해야만 했던 초기에는 어색함이 많았는데, 이제 점차 적응하며 익숙해지고 있다고 한다.

국제불교학교에 다니기 위해 캐나다에서 2월에 입국한 일양스님은 "앞으로 종단에서 하는 국제포교 일에 적극 참여하고 또 불교 사전을 영어로 편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국내외에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당당한 활약상이 기대된다.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한국 불교가 미주 지역에 첫발을 내딛은 것은 언제였으며, 조계종이 본격적으로 미주 포교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서경보스님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시작하여, 1972년 송산스님이 미국에서 본격적인 포교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제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불교의 국제화, 해외 포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특별교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해외특별교구법'을 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10일 제정하였다. 해외에서 불법 흥포에 진력하고 있는 사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 목적 : 한국불교의 국제화, 해외 포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특별교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기본방침 : 종단은 한국불교의 국제화, 해외 포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지원. 그리고 해외사찰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하여 진력.
- 등록 :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법인등록절차를 마친 사찰. 단, 법인등록이 안된 사찰은 포교소로 등록.
- 권리 : 사찰명에 대한불교조계종 사용·종단의 우선 지원과 협조 받음.
- 의무 : 종단 및 해외특별교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결계신고 및 포살에 참여.
- 설립 : 관할 범주 내 10개 이상의 사찰과 20명 이상의 스님으로 설립이 가능·필요시 총무원 총무회의를 통해 단일 사찰도 해외특별교구로 지정.
- 사업 : 사찰의 지원 및 관리·승려의 수행환경 조성하고 지원·포교·한국불교와 문화 홍보·기타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함.
- 부칙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법 시행일 이전의 해외파견승과 총무원에 등록된 사찰 등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원문은 홈페이지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머나먼 타지에서 푸른 꿈을 키우다

사회복지재단, 몽골 드림센터 현장보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승스님)의 상임이사 종선스님과 임직원은 지난 3월 말 재단 최초의 해외복지시설인 몽골 드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독려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곳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십여 년의 복지노하우를 바탕으로 2008년 몽골아이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설립한 재단 최초의 해외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해외 NGO단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고, 종교적 성격의 단체 활동에 제약이 많은 몽골의 여건 속에서 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큰 일교차와 열악한 토양의 상태 등으로 인해 센터의 건물이용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안

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드림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바안주르흐 구청을 방문하여 드림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위치한 코피온센터와 외곽에 위치한 공생청소년센터를 방문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해외 구호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몽골현지의 상황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변화, 현재의 욕구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서로가 경쟁관계가 아닌 몽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하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번 현장방문은 재단 최초의 해외복지시설인 몽골드림센터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알려준 몽골드림센터에 대한 지역사회내의 인지도와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굉장한 신뢰와 기대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늘어만 가는 게르촌 지역의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심어주며 아이들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끊이지 않도록 나눔을

위드아시아, 해외구호사업 본격 전개



지원스님

해외 구호사업과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두 단체가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 본격적인 민간교류 사업을 전개한다.

4월초 통일부로부터 개명 승인을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는 임의 단체였던 위드아시아와 법인인 참여불교운동본부를 ‘위드아시아’ 법인으로 사업과 운영을 하나의 단체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인 설립 첫째 ‘해외구호사업’으로 캄보디아 뿌레이뱅크 뿌레이프랑 빈민지역에 ‘위드아시아 어린이 공부방’ 운영 및 마을 지원사업을 펼친다. 법인은 지난달 말 현지답사를 통해 마을현황과 교육여건, 생활여건 등을 조사했다.

위드아시아는 부산 문수사 주지 지원스님(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이 이사장을, 상임이사는 합천평화복지회진스님이 맡았다. 포교원장 혜종스님과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 등 7명이 이사진에 참여한다. 사무총장에는 이남재 월곡청소년수련관장이, 사무국장에는 김두찬 씨가 임명됐다.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051-322-7902

전하고 있는 몽골드림센터야 말로 국경을 넘어 부처님의 자비손길을 전하는 불교사회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곳이 아닐까요?”라며 “몽골드림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건물의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을 지원해줄 후원기업과 후원자를 모집한다.”라고 전했다.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함께 하는 세상, ‘한·몽골 불교문화 네트워크 강화’

함께하는 세상(이사장 지승스님)은 부처님의 자리아타(自利利他)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계인이 이웃되는 나눔의 자비공동체’를 만들고자 지난 2007년 9월 1일 창립된 단체로 국제친선문화교류와 국내외복지구호지원, 국내이주민 지원활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함께하는 세상은 몽골불교유치원 건립지원사업과, 해외의료봉사(몽골, 스리랑카)활동을 비롯한 복지구호지원과 상호친선교류방문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대구이주노동자 지원상담센터 운영, 이주민 24시 쉼터 운영, 한국문화체험투어 등의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이주민들의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리랑카와 몽골법당의 운영을 지원하고, 매년 웨

삭데이와 카티나 핑카마, 차강차르(몽골 설날), 송년 나눔 음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매월 이주민 법회를 열고 있다.

2011년도 주요사업으로는 ‘한·몽골 불교문화 네트워크 체험 탐방’ 행사를 비롯해, 글로벌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몽골지역), 라오스 친선방문 및 현지답사단 파견, 이주민 상담 및 지원활동, 긴급 피난시설인 쉼터 ‘이웃’ 개설 등을 계획 중에 있다.

함께하는 세상 053-582-0757



사회부 ‘불교시민사회단체’ 선정결과 발표

조계종 사회부는 4월 4일 ‘2011년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더프라미스는 올해 국제개발아카데미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제개발협력 주민운동 교육 사업을 펼친다. 4월부터 7월 초까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주민 조직 및 운영, 조직화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제로 꾸러지는 등 6개 단체가 선정됐다.

단체명	선정사업
광주전남불교 NGO연대	NGO 역량강화 프로젝트
더프라미스	국제개발협력 주민운동 교육
사찰생태연구소	경전에 나타난 식물목록을 조사
위드아시아	평화통일 원원 건기대회
함께하는세상	한몽골 불교문화 네트워크 체험순례
합천평화복지회	2011 원폭희생자 추모제를 개최

이번 공모사업은 사업 목적과 창의성, 기대효과, 단체신뢰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사회부는 “공모사업에 지원해준 단체와 관계자 분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종단에서 가능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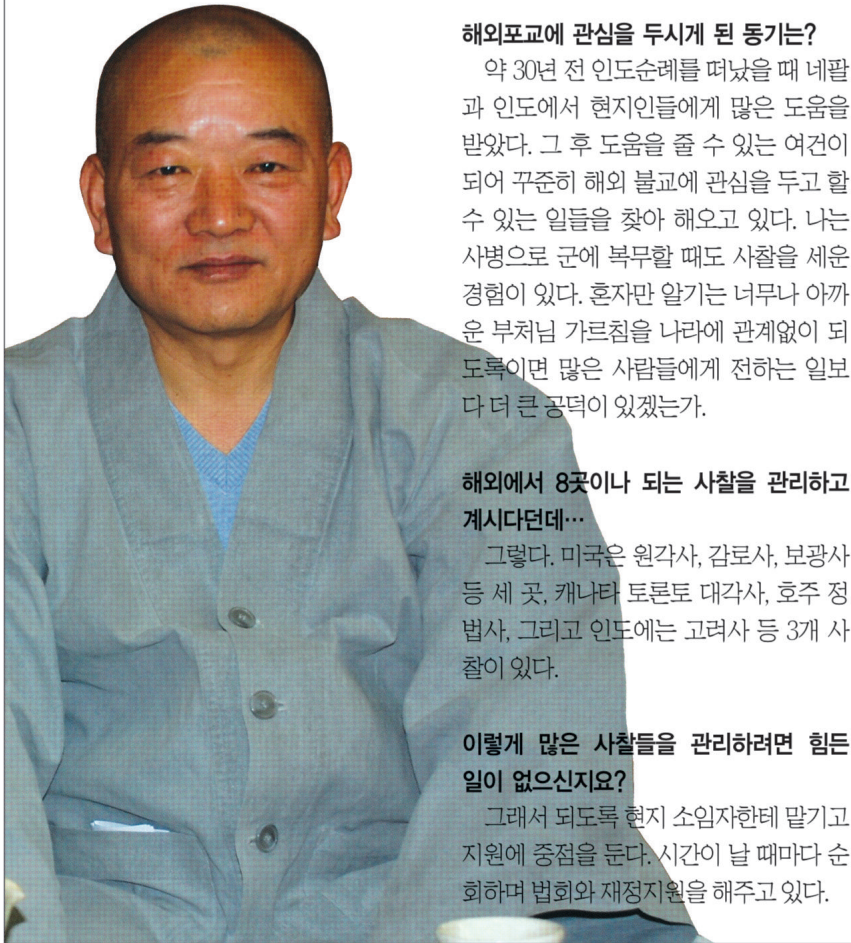
인터뷰 - 해외포교를 말하다

“혼자 알기엔 아까운 불교, 세계에 전해야”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과 해외포교의 인연은 넓고 깊다.

아시아, 미주를 넘어 오세아니아까지 세계 곳곳에 사찰 설립과 운영 및 의료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계일화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열정과 비전을 듣기 위해 정우스님을 만났다.



해외포교에 관심을 두시게 된 동기는?

약 30년 전 인도순례를 떠났을 때 네팔과 인도에서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꾸준히 해외 불교에 관심을 두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오고 있다. 나는 사병으로 군에 복무할 때도 사찰을 세운 경험이 있다. 혼자만 알기는 너무나 아까운 부처님 가르침을 나라에 관계없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보다 더 큰 공덕이 있겠는가.

해외에서 8곳이나 되는 사찰을 관리하고 계시다던데...

그렇다. 미국은 원각사, 감로사, 보광사 등 세 곳, 캐나다 토론토 대각사, 호주 정법사, 그리고 인도에는 고려사 등 3개 사찰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찰들을 관리하려면 힘든 일이 없으신지요?

그래서 되도록 현지 소임자한테 맡기고 지원에 중점을 둔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순회하며 법회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번에 뉴욕 원각사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뉴욕 원각사는 2004년 말 당시 주지셨던 법안스님께서 노환으로 후임자를 찾던 중 직지사 녹원스님과 당시 총무원장 법장스님께서 추천하여 맡게 된 사찰이다. 삼십만 평 대지에 자리 잡은 대찰인데 당시만 해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거의 폐허가 되었던 상황이었다. 경내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도 여러 해를 보냈다. 지금은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 훈기도 돌고 법회 때마다 많은 불자들이 운집하고 있다. 작년에는 통도사 사리탑과 6미터 높이의 청동대불도 모셔 본격적인 불사준비를 마쳤는데 뉴욕의 불자들로부터 많은 반응이 오고 있다. 역시 뉴욕은 뉴욕이고, 이를 통해 불자들의 간접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선 어떤 활동이 있었나?

나는 난민처지에 있으면서도 깊은 신심을 보여주는 티베트불교에 깊이 감명을 받고 있다. 티베트 본토에만도 9차례나 방문하며 약품 등 생필품을 지원해 왔

다. 작년 10월에는 의료진 30명과 남인도를 방문하여 의료봉사를 펼치고 약품 700 킬로그램을 보시한 적도 있다. 이번에 쓰나미 피해를 받은 일본에도 일차로 구호성금 일억오천만원을 보시했고 지금도 모금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들어 해외포교에 대한 종단의 관심이 높는데...

고마운 일이다. 해외 한국불교는 본국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아울러 국내불교의 자정과 정체성 회복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정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위한 원장스님의 발원이 고맙고 감사하여 나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향후 스님의 계획은?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마치면 원각사에 좀 더 마음을 쓰려고 한다. 소임과 직책을 떠나서 빛이 되고 향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봉사하였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인터뷰_ 이종권(편집위원)

뉴욕 원각사, 대작불사 모금 두 달 만에 270만불 달성

4월 10일 뉴욕 원각사 법당에서는 백여 명의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한 행사가 봉행 되었다. 원각사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박미숙 - Harry Doolittle 부부가 원각사 불사를 위한 보시금 백만 불을 증정하는 전달식이었다.

원각사가 맨해튼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연을 이어 왔던 박미숙님은 원각사 대작불사가 곧 착수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거액을 쾌척하게 되었다. 박미숙님은 “어려서부터 불경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한 것뿐이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 했는데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어 죄송할 따름”이라며 겸연쩍어했다.

미동부 한국불교 원찰인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스님의 대작불사는 뉴욕 한국불교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로서, 이 지역에서 신행생활을 해왔던 불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서원했던 사업이었다. 대작불사를 위한 모금활동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자 회주 정우스님 10만불, 사찰의 오랜 신도였던 조일환님이 50만불, 불사추진위원장 정화섭님이 50만 불을 내놓았으며, 신도들이 크고 작은 후원금을 보시하여 4월 중순 현재 270만 불에 이르는 불사금이 적립된 상태

이며, 동참을 위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반응에 대하여 주지 지광스님은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불사 원력과 그간 (신도들 사이에) 축적된 사찰에 대한 신뢰가 결합하여 이러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후원하신 모든 분들의 정성이 원각사를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소중한 사용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뉴욕 시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가량의 거리에 위치한 뉴욕원각사는 30만평 대지 위에 총 700만불 규모의 불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2일 기공식을 갖고 법당과 선방 그리고 납골당을 동시에 착공할 예정이다.

동참문의 845-497-2229

newyorkwonaksa@yahoo.com



LA 선각사 선학스님, 호법부 미주지역 중앙감찰 선임

LA 선각사 주지 선학스님이 지난 2월 총무원 호법부로부터 미주지역 중앙감찰로 선임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호법부 조사국장 혜만스님은 LA를 방문하여 선학스님에게 미주지역 중앙감찰 위촉장을 전달하였고, 임명날짜는 2월 23일로 되어 있다. 호법부는 “종단승려가 설립한 사찰이나 조계종 승려가 많이 상주하는 지역에서의 분구나 승풍실추와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현지

에서 직접 사실 확인과 정황파악을 해줄 것”을 위촉장을 통하여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호법부의 공정성과 업무효율을 위해 취한 한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선학스님은 “너무나 중요한 소임이 주어저 마음의 부담이 크지만 공심을 갖고 수행하여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화 1-213-487-6768

LA 법왕사 현일스님, 동국대 총무이사 선임

LA 법왕사 주지 현일스님이 종립 동국대학교 LA 캠퍼스 총무이사로 임명되었다. 현일스님은 LA 한인불교계를 대표하는 원로 스님으로, 이사 선임은 그동안 현지 교계와 활발한 교류관계를 갖지 못하여 소원했던 종립대학의 위상과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일스님은 “동국대와 이곳 불교계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새로 부임한 총장이 독실한 불자이고 동대 출신이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종립인 LA 동국대는 한국에 본부가 있는 관계로 그동안 무주공산적으로 운영되었던 느낌을 많이 받았



다”고 밝히며 “많은 타민족들과 주류사회서 한의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교와 한의학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앞으로 “많은 불자뿐만 아니라 본국의 협조와 지원 속에서 학교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화 1-714-530-2052

뉴저지 보리사, 춘계 집중수행

뉴저지 보리사는 3월 27일 춘계 집중수행을 실시, 30여 명의 불자들이 삼천배로 수행정진을 하였다. 삼천배는 성철스님이 평소에 강조했던 수행법으로써 삼천배 수행을 마친 불자들에게 친견을 허락했던 뜻 깊은 사연을 갖고 있다.

원영스님은 “불교에서는 우주를 삼천대 천세계로 부르는데, 삼천배 수행은 삼천 번의 절을 함으로써 무한한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절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하며, “삼천배 수행을 하게 되면 망상을 없애고 하심을 닦을 수 있으며, 절 수행을 꾸준히 하면 생각이 바뀌면서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2002년 미국에 보리사를 개원한 주지 원영스님은 그 동안 참선과 절

수행을 지도해 왔는데, 이번에 집중수행을 공식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보리사에서는 매일 새벽에 불 시간에 108배 정진을 하고, 매주 수요일 새벽에는 300배, 그리고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1000배 수행을 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삼천배 수행을 병행해 왔다. 원영스님은 “앞으로 일상적인 수행은 그대로 진행하되 불자들의 요청으로 집중수행도 정기적으로, 보다 활발히 실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www.borizenny.org



오كل랜드 보리사, 부처님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쪽지 한통을 받았습니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존불을 모시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모셔가야 할 곳이 없다는 쪽지였습니다. 현재 보리사(주지 현전스님) 법당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선불리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좁은 공간이지만 보리사에 모셔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셔 왔습니다. 이 부처님은 1995년 한국에서 모셔 왔는데 얼마 후 사찰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포장된 상자를 푸니 1998년의 신문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불단에 모시니 가득 찼습니다. 이젠 인연 있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에서 포교의 큰 서원을 가지신 분이라면 오셔서 모셔 갔으면 합니다. 큰 원력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스님이나 불자는 연락을 주십시오. 참고로 부처님 크기는 두자 반이라고 합니다.

이메일 ehgdgtk@yahoo.co.kr.

전화 510-717-5181

5900 Shattuck Ave #100 Oakland CA 94609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북경 만월사,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절의 네 기둥

중국 각 지역에 있는 한국 사찰들은 많은 제한이 따르는데, 정부에서 허가하는 범위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만월사 법당은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왕징지역 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외국인 종교 활동에 대한 비준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매년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전이 늦어지고 있어 늘 마음이 편치 않다.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이웃에게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될 우려 때문에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만월사주지 진명스님은 여성 불자들로 구성된 문수회와 외부에서 활동과 지원을 하는 연경거사회, 매주 수요일 좌선과 수행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소수의 유마회,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

된 반야청년회가 만월사에서 네 기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주권과 시민권 제도가 없는 중국과 한국은 두 시간이면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북경이다 보니 사찰의 구성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는데, 반야청년회의 구성원이 변화가 가장 심하다.

어학연수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졸업이다 군입대다 해서 얼굴과 이름이 익숙해질 만하면 떠난다. 참 어려운 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오신날 행사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초심을 돈독히 다지고 있는 반야청년회 청년 불자들의 모습은 요즘 만월사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전화 86-10-6475-9293



이탈리아 무상암, 계절마다 다른 자연의 소리로 안거

무상암은 제노바 동쪽 100km의 포에츠만 숲 속에 있는 자그마한 암자이다. 포에츠만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바이론, 셸리 같은 시인이 머문 곳이다.

열반하신 송광사 일각 큰스님의 상좌인 태혜스님이 세웠고, 한국에서 계를 받은 태리스님이 상주하고, 이탈리아인 비구니 영우스님이 참여해 수행한다.

이탈리아에는 아시아 각국의 이민자들을 포함한 불자들이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무상암은 “코뮤타 보디다르마”라는 45개의 센터와 다양한 불교전통의 단체가 소속된 이탈리아 불교협회의 본부이다. 참선과 경행이 주요 일과이며 예불시간에는 반야심경을 한글로 독송한다. 사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소리와 함께 안거를 하며, 특히 추석 안거는 동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전을 독송하기도 한다. 안거대중은 오계를 지키며 채식을 한다.

핀란드인인 태혜스님은 핀란드 보디라르마협회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하다.

www.bodhidharma.info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에 하버드 출신 법학자 당선 - 한겨레신문 [2011. 4. 27]

하버드대 출신의 젊은 법학자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해, 전세계 망명 티베트인들의 새 정치지도자가 됐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한달 동안 30여 개국의 망명 티베트인 4만9000여 명이 참여한 총리 선거에서 톱상 상가이(42)가 55%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27일 발표했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총리인 '칼론 트리파'로서, 그는 전세계 티베트 자치운동의 정치적 중심점이 돼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상가이는 중국의 점령에 저항하는 티베



트인들의 1958년 봉기 이후 망명자들의 공동체에서 태어난 신세대다. 승려였던 그의 아버지는 중국군이 사원을 파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인도로 망명했다. 상가이는 인도 동북부 다르질링에서 태어나 티베트에 가본 적이 없으며, 델리대학에 다니던 시절

에는 급진적 독립투쟁을 추구하는 티베트 청년회의에 참여해 거리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15년 동안 하버드대의 연구원으로 일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는 8월 총리 취임을 앞두고 다람살라로 이주해 경험해본 적이 없는 망명정부의 행정을 지휘하고 중국과의 협상 등에 나서게 됐다.

그는 비비시(BBC)와의 인터뷰에서 “달라이 라마가 대표하는 것은 ‘중도의 길’로서 중국 안에서 또는 중국 헌법의 틀 안에

서 진정한 자치를 하는 것”이라며 티베트의 독립보다는 ‘진정한 자치’를 주장하는 달라이 라마의 노선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75)는 자신의 사후, 중국이 후계자 선정에 개입하고 티베트 자치운동이 소멸할 것을 우려해, 민주적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 지도자라는 새 틀을 만들어내려 했다. 톱상 상가이는 바로 그 결실이다. 티베트의 세속적 정치 지도자라는 새 역할을 확립할 수 있을지, 중국과의 비폭력 협상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무거운 과제들이 그에게 옮겨왔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캔버라 불교지도자의 기독교 편향에 대한 비판

- ANI [2011. 4.11]

호주, 캔버라 - 불교 공동체의 지도자 수스미츠 박사가 빅토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기독교 편향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수박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다면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도 수백 개의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교육부가 각 학교들로 하여금 동의 없이도 기독교 종교교육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주에는 주 교육부장관인 마틴 디슨이 제안한 기독교 종교교육 제공 기관의 연수법 개선에 추가 자금 2백만 달

러가 승인되었다.

수 박사는 빅토리아의 14개 학교에서 불교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민중운동의 종교 평등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스콧 헤지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호돈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선교중심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딸이 받는 수업과 아프리카 마을의 차이는 우리가 좀 더 깨끗한 물과 신발을 가졌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불광산사, 홍콩에서 대비참(大悲懺)법회 개최



홍콩 - 국제불광회 홍콩협회와 대만 불광산사 홍콩 포교원의 주최로 대비참(大悲懺)법회가 지난 4월 8일 홍콩 홍감체육관에서 열렸다. 대비참(大悲懺)법회는 중국불교에서의 참회 발원 기도 의식으로 한국불교에서 독송되는 『천수경』과 성격이 매우 흡사하다.

성운 큰스님이 주창한 ‘환경보호와 마음보호’라는 대형 포교 활동 중의 하나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자비 가피 속에 대중들의 힘을 한 곳에 모아, 전 세계의 재앙이 사라지며 사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법회다. 또한 이 공덕을 일본의 수재민들에게 회향하여 그들이 하루속히 고통을 벗어나 새

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발원하였다.

성운큰스님은 “출가한 지 70년이 되었는데 매일 아침저녁, 곁을 떠나 차를 탈 때나 늘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염불해 왔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감응이 없다는 건가? 아니다. 보살님께서 늘 내 옆에 계시지만 아니라 내게 자비, 지혜와 인내심을 강하게 키우도록 해주셨다.”며 관음기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세음보살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계시다고 강조하였다.

큰스님은 이어서 “마음속에 계신 보살님이 제일 중요하다. 관세음보살님은 천 곳에서 기도를 올려도 천 곳에 감응하시며 고통의 바다에서 늘 사람들을 제도하는 배가 되어 주신다고 한다.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염불하며 관세음보살님께 절을 올리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한다. 대비참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나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은 세세생생의 일”이라고 신도들을 격려했다. **글_소열병**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장, WFB 회장 및 대표단 접견

- 불교재선 [2011. 4. 12]

중국, 베이징 - 4월 11일 국가종교사무국 왕작안 국장은 베이징에서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판 완나미티(Phan Wannamethee) 회장 및 팔롭 타이ერი(Phallop Thaiyry) 사무총장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환담을 나누었다.



먼저 왕국장은 2010년 개최된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스리랑카 대회에 “중국대표단을 초청해줘서 감사하며, 대회는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개최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불교계가 대회 참가를 계기로 세계불교도우의회(WFB)와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세계에서 아시아 불교국가들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불교는 세계평화와 화합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WFB회장은 중국경제 발전의 커다란 성과를 인정하였고 향후 지속적 협력관계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처님 탄생지의 복원

- AFP [2011. 4. 5]

네팔, 카투만두 - 국제유적보존팀이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 서쪽에 있는 부처님 탄생지의 위협에 처해진 유물 3기의 복원을 시작했다. 보존처리 전문가인 코스타티노 무치가 이끄는 보존팀은 표지석, 탄생조각상 그리고 아쇼카 기둥을 복원하게 되며, 일본정부는 복원 자금을 지원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1997년 룸비니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많은 성지순례자들이 세계에 모여들고 있다.

표지석이 있는 곳은 부처님의 정확한 탄생지이라 믿어지고, 탄생조각상은 부처님의 어머니가 출산 중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조각물이다. 또한, 아쇼카 기둥은 기원전 3세기에 세워졌다. 무치는 “탄생조각상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바깥의 층이 벗겨지고 있다. 아쇼카 기둥은 사람의 활동과 생리적 영향으로 부식 되어가고 있다. 설탕과 기름 등의 양물이 표지석의 색깔을 변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시회 사상 최초로 불상과 만화의 공동작업!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展” 개최결정

일본, 도쿄 - ‘데즈카 오사무’ 작가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붓다”. 일본국내 발행 부수 2000만부를 자랑하는 베스트셀러 만화를 처음 영상화한 애니메이션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 사막이야! 아름답게!”(5월 28일 공개)의 공개 상영을 기념하여 도쿄 국립 박물관 특별전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0년 간에 걸쳐서 연재된 장편 만화는,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생애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설화를 기반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구축, 독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왔다. 영화는 총 3부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영되는 1부는 나중에 부처님이 될 싯다르타의 사랑과 전쟁, 청춘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데즈카 오사무의 영원한 테마 “생명의 존엄”이 짙게 나타나고 있어 흥미의 시대로 불리는 “지금”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작품이다.

본 전시회는 만화의 신이라고 불리는 데즈카의 만화 “붓다”의 친필 원화 50점과 중요 문화재를 포함한 간다라와 함께 일본의 아름다운 불상 15여 점을 통해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일본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데즈카 오사무가 표현한 부처님의 세계관을 체험하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을 묻는 기획전이 될 것이다. **www.tnm.jp**

■ 기간 4월 26일(화)부터 6월26일(일)까지 ■ 장소 도쿄국립박물관

집중조명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 - 영원히 타오르는 전법에의 열정

서양인들이 반테 G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은 1968년 이후 미국에 머물면서 전세계에서 수행을 지도해오고 있다.

1927년에 스리랑카에서 태어났고 12살에 출가하여 전통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생의 좋은 업에 의해 얻은 경전의 내용은 바로 이해하고 외웠다. 사진을 찍은 듯한 기억력으로 공부에 빠른 진전을 보였고 경전뿐만 아니라,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영어 등의 어학을 습득하게 되었다.

만 20세가 되던 1947년에 비구계를 받았고 마을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경전을 외우는 행사에서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밤낮으로 경전을 외웠는데 그 부작용으로 모든 기억력을 잃어버렸다. 온갖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던 중 참선을 해 보자는 생각이 떠올랐고 홀로 대념처경의 사념처수행을 통해 점차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몇 달 안에 기억력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다. 스님은 어린 사미시절부터 영어로 불교를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릿 속에 맴돌았으며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은 마치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1950년대에 인도로 건너가 아쇼카왕이 세운 산치대탑을 관리하는 소임을 보았고,



힌두어가 가능했으므로 새로 불교로 개종한 불가촉천민에게 불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열악한 환경에 고된 삶이었으나 자신의 편리나 편안을 위한 한 생각도 없이 불가촉천민에 헌신했다.

1968년에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최초의 남방상좌불교의 절인 워싱턴정사에서 직접 몸으로 일을 하면서 절을 관리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하면서 전법을 시작했고 조지타운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불교와 참선을 가르쳤다. 50대에 아메리카대학에서 선정과 지혜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시에서 있는 절의 번거로움을 벗어나 안거와 집중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참선과 불법을 전하고 싶었던 스님은 1985년에 바와나 소사이터티를 창건했고 선원장이 되었다.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전통적인 승가적 분위기의 선원으로 안거 대중들

은 오후불식 등의 8계를 엄격하게 지킨다. 보시로만 운영하며 비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원을 지향하며 특정문화를 내세우지 않는다.

구나라타나 스님은 진솔하고 자비로운 스타일로 불자들을 지도한다. 경전을 가르칠 때는 팔경도의 모든 가르침에 근거한 균형잡힌 접근법을 사용하며 선정의 바탕이 되는 자비선을 강조한다. 특히 사마타와 위빠사나에 같은 시스템의 내적인 부분일 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둘다 닦는 것이 참된 수행이며 수행은 위빠사나 곧 알아차림으로 시작해 선정이 생기고, 선정으로 내면의 뿌리깊은 정신적 장애를 통찰하여 정화한 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위빠사나에 다시 이르는 과정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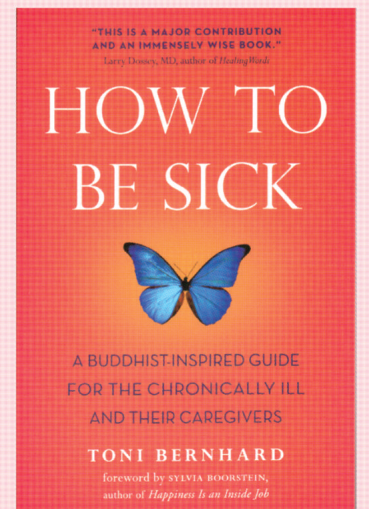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불법에 대한 깊이는 이해뿐만 아니라 경전에 근거한 정확한 수행안내도 받을 수 있다.

www.bhavanasociety.org에 스님의 법문과 100여 개에 이르는 법문음성파일이 있다.

현재 스님은 80대의 노구에도 미국 전역과 세계에서 전법하고 있으며 올해 5월 16일 UN본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설법할 예정이다.

편집부

어떻게 아플 것인가? - 삶은 다 괜찮아



토니는 캘리포니아 법과대학에 20년 째 교수로 재직하던 중 휴가차 남편과 프랑스 여행을 떠나던 비행기에서 어떤 의사도 확실히 진단내리지 못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0년째 투병중인 만성병 환자이다. 발병 이전에는 이름이 같은 남편 토니와 함께 수많은 참선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녀는 불교 수행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아플 것인가?"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친구들이 멀어져 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상생활을 함께할 수 없어 외롭고 고독한 병자의 고통을, 그 고통 속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마음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면, 송산스님, 아잔차스님 등 큰스님들의 말씀과 불교의 지혜로 치유하고 사성제 · 삼법인 · 사무람시의 진리를 체험하고 확인해 가는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책의 곳곳에 저자의 유머가 녹아 있어 독자들의 마음이 결코 무겁거나 어둡지 않다.

저자는 만성병에 걸려 고통 받는 사람과 간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다고 하지만 일반 독자들은 책을 통해 아픈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일상생활 중 경험하게 되는 괴로움을 긍정적인 힘으로 승화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토니는 "삶은 다 괜찮아, 이게 내가 받은 삶이고 단지 나의 인생일 뿐이야."라는 조코 백의 말을 인용,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평화롭고 편안하며, 고통을 여의고 자유로워지이다."라는 간절한 발원으로 글을 맺고 있다.

편집부

태국의 불교유적로개발 지원

- 텔레그래프 [2011. 4. 4]

인도, 뉴델리 - 인도는 호텔을 포함 항공과 도로의 연계성이 낙후된 불교유적로 개발을 위해 태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태국 수상 아비시트 베자지바는 인도를 방문해 양국의 국방협력과 무역증진을 추진할 것이다. 인도는 태국에 불교유적지의 기반시설의 개발에 도움을 요청한 반면 태국의 산스크리트어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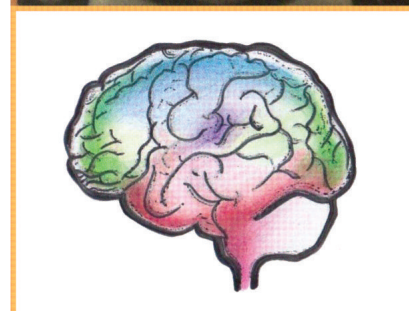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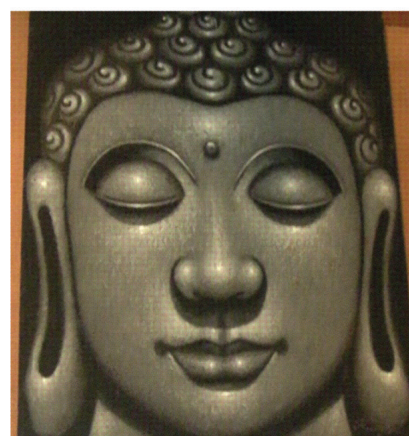
외무부 관리들은 한 해 5만 여명의 태국 불자가 부처님의 성도지인 보드가야를 방문한다고 말했다. 70만 명의 인도 관광객이 매년 태국을 방문하고 양국간에 하루 20편의 비행기가 운행되고 있

다. "불교유적지와 관련한 종교 관광의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정체되었다"고 외교부 관리가 말했다. 보드가야의 도로와 라지그르, 바이살리, 사르나트 그리고 쿠시나가르의 불교성지가 낙후되어 있다.

태국의 회사들은 벌써 인도의 기반시설 확충에 참여해 델리 메트로 건설에 협조하고 캄페타에 공항을 건설하고 있다. 이에 뉴델리는 태국 대학에 더 많은 산스크리트어 교수를 파견하고 인도학 연구를 위해 준비할 계획이다.

통 정도를 관찰했는데 11~93%까지 감소했다. 참선은 고통의 자극 강도를 느끼는 뇌의 영역인 체지각 피질의 주요 부분에서 뇌활동을 감소시켰다. 참선을 하기 전에는 이 영역에서의 활동이 매우 높았지만 참선할 때는 고통 처리 영역의 활동을 스캔할 수 없었다.

"참선이 고통을 막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참선이 뇌의 한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층의 처리과정에서 고통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지단은 말했다.



1시간의 참선, 모르핀보다 더 강력한 효과

- AFP [20011. 4. 6]

미국, 워싱턴 - 80분 정도의 훈련을 받은 뒤 참선을 하면 모르핀보다 더 강력한 고통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4월 6일자 신경과학저널지에 실린 보고서에서 작성을 주도한 웨이크 포리스트 바디스트 메디컬센터의 파텔 지단 박사는 "이는 1시간이 넘는 집중수련 방식의 참선이 고통과 고통을 관장하는 뇌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첫번째 연구"라고 했다.

참선은 고통의 40%, 불쾌감의 57%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평균 25%의

고통을 줄여주는 모르핀 같은 진통제보다 더 뛰어난 효과다. 연구자는 참선경험이 전무한 15명의 지원자들에게 20분씩 4번의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호흡조절과 생각과 감정의 제어방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업이 끝나고 지원자의 뇌를 ASL MRI라는 뇌 속 대뇌 혈액순환을 측정하는 특별한 종류의 자기공명영상으로 관찰했다. 열장치를 지원자의 오른쪽 다리에 장착하고 49도의 열을 내게 해서 5분 동안 이들의 고

마하 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

서울 - 경기 회원단체 간담회



4월 14일(목), 마하 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는 회원단체 근황 및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2011 이주민 배구 큰잔치' 세부 운영안을 논의하고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 회원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각 회원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주노동자와 서울시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6월 19일(일), 양천구민체육관에서 '2011 이주민 배구 큰잔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앞서 3월 31일(목), 마하 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는 이주민 법당 담당 스님들과 모임을 갖고 이 행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참여를 유도 총 10개국(몽골,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및 한국)에서 출전 계획에 있다.

이 행사를 위해 마추협은 서울-경기 회원단체와의 지속적인 기획회의를 거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후원을 유도해 이주노동자와의 화합에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진서스님(자운선원 주지)이 후원금을 보내주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관심 있는 많은 사찰과 기관의 후원을 통해 다채롭고 풍요로운 행사로 꾸며갈 예정이다.

전화 02-720-7095

오산 행복한 이주민 센터 -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창립기념식 및 대토론회

3월 27일(일),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이사장 석정호) 창립기념식 및 대토론회가 (사)나눔과 비움 주최, 행복한 이주민 센터 주관으로 경기도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화 시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 석정호 이사장은 "그간 행복한 이주민 센터와 오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오던 중 자녀들의 사례를 접하면서, 아이들의 60% 이상이 중도 탈락하거나, 중도 입국 자녀의 교육이 절실함을 느껴 아이들을 품어 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정부에서 주도할 일이지만, 우리처럼 민간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주관하는 것이 무모해 보여도, 내 것을 나누고 마음 그릇을 키워서 세상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고자 사단법인을 창립하게 된 것"이라는 인사말을 남겼다.

이어진 대토론회는 "공존과 어울림" 준비되어 있는가?(이기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다문화 청소년교육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혜숙 금강대 복지학부 교수)이라는 주제 발표 및 좌장(강인수 수원대 부총장)과 8명의 패널의 다문화교육의 현안 관련 열띤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전화 031-376-3427

사망이주노동자 추도법회 추진위원회 -
방글라데시 아프사라만 추도법회

조계종 사망이주노동자 추도법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3일(일), 경기도 동두천 네팔법당 용수사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아프사라만에 대한 추도법회를 거행했다. 아프 사라만은 지난 3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금강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이날 추도법회에는 화계사 사회국장 선현 스님과 김규범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장, 네팔의 우르겐 스님 등 불교 관계자들과 유족,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르겐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라만씨가 태어난 둘째 아

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 하지만 고인은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더욱 행복하게 사실 것이라 저는 믿는다. 고인이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시기를 빌고 또 빌겠다."라고 말했다.

조계종 사망이주노동자 추도법회 추진위원회(용화사, 보타사, 화계사, 용수사, 김포마하이주민센터,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생활의례문화원, 한국YBA)는 현재 아프사라만씨의 산재 보험 처리 및 봉축행사를 통한 고인의 가족 후원 모금 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사망이주노동자 추도법회 추진위원회

031-985-0654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Hi 다문화! High 일자리!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진오스님)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업과 취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자, 4월 2일(토) 다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결혼이주여성 30여명에게 다문화가족 취업 탐색교육을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김천시, 고용노동부 및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고 김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4월 22일부터 6월10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진오스님은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취



득한 학위나 자격증 등이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출산·양육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나서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장점을 자원화하고 다문화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및 사회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054-443-0755

구미 꿈을 이루는 사람들 · 산본 캄보디아 불교센터 -
"캄보디아 설맞이 '쫄 흐남' 축제 즐거워요!"

4월 10일(일), 산본 캄보디아 불교센터(대표 린사로 스님)와 4월 17일(일), 구미 꿈을 이루는 사람들(대표 진오스님)은 각각 캄보디아 설맞이 '쫄 흐남' 축제를 진행하였다.

'쫄 흐남'은 캄보디아설날을 지칭하는 말로 농사가 한가한 4월을 새 해로 인정하여 새로 마련한 음식과 과일로 축제를 즐기며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음식을 장만하여 절을 찾는 풍습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업현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한국인과 문화교류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준비한 이날 행사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캄보디아노동자들이 참석하였다.

구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2011 캄보

디아 설날맞이 이주노동자 한마당행사'에 참여한 랭훗(남/28세)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안니(여/25세)는 퇴직 후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센터의 도움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고맙다며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를 도와달라며 아름다운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각 축제에서는 캄보디아 밴드음악과 노래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추고, 전통음식을 나눠먹으며, 다양한 민속놀이와 탁발의식 재현을 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였다.

전화 054-458-0755